

10년간 19조 투입... 전남, 그린수소 메카 도약

지역 이모저모

'전남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7대 전략, 27개 추진과제 선정 도내 11만 개 일자리 창출 전망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가 2050 탄소중립의 마스터키 '청정에너지 대전환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그린뉴딜 핵심 프로젝트로 역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과 연계해 국가 그린수소산업의 메카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미래 10년 '전남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린수소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7대 전략과 27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19조 346억 원을 투입한다. 도내 11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역의 우수한 산업환경과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수소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수소 전용 항만터미널 구축 ▲수소차

5만 1천 대 및 수소충전소 38개소 구축 ▲2031년부터 연간 그린수소 97만 톤을 생산할 구상이다.

2025년까지 1단계 도입기에는 그린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생산 준비에 집중한다.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수전해기술 연구개발(R&D) 선점을 위해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개발 ▲e-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실증 인프라 구축 ▲그린수소 수전해 인증센터 구축 등 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2단계 정착기에는 그

린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생산기지를 중점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소특화단지 조성 ▲대용량(3MW) 수전해스택 기술개발 및 실증 ▲그린수소 생산 해양선박 구축 ▲수소 분석센터 구축 ▲장시간 운용 드론 연료전지 실증 구축 등 12개 세부과제를 실행한다.

2031년까지 3단계 확산기에는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 등 전주기가 가능한 그린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마친다. 이를 위해 ▲그린수소·암모니아 전용 항만터미널 구축 ▲그린수

소 에너지 섬 조성 ▲수소차·충전소 지속 보급 ▲탄소저감형 메탄올 합성 실증 등 1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지역 특성과 강점을 연계해 전남 권역별로 추진전략을 분산한다. 동부권은 여수석유화학산단과 광양만권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수소 전주기 시스템과 연관산업을 집적화할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그린수소·암모니아 수입 전용 항만 등을 구축하는 거점으로 중점 육성한다.

권역별로 중부권에는 한전, 한국에너지공대, 규제자유특구, 빛그린 국가산단 등 신규 구축하는 혁신인프라를 활용해 수전해 등 그린수소 원천기술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e-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부권에는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태양광 발전단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에너지 섬 등 그린수소 대규모 생산·실증단지를 조성한다. 수전해 플랜트를 생산하고 수출입할 전진기지로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구례군, 농식품 가공 신기술 보급

전남 구례군은 농촌자원활용 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조청 시범사업과 전통 음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음식 발전을 위한 향토음식 및 전통 음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사업은 전통음식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장 구축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대상은 식생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농가 또는 영농법인체이다. 자세한 상담은 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전남)=심인주 기자 6007sim@

영암군, 문화누리카드 대상 확대

영암군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선착순 80%로 제공하던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을 올해에는 저소득층 모두에게 발급 운영한다.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6세 이상의 차상위계층에게 문화·관광·체육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카드이며 1인당 10만원이 지원된다.

신규 발급 희망자는 내달 3일부터 가까운 읍·면사무소,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과 ARS를 통해 발급 및 충전할 수 있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지난 18일 김천시청에서 진행된 후원금 전달식에서 유한김벌리, 김천상무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한김벌리

유한김벌리, 김천상무프로축구단 후원

1980년부터 김천 공장 운영 인연

유한김벌리가 경북 김천을 연고로 하는 구단이자 올시즌부터 K리그1(1부)에 활약할 김천상무프로축구단(김천상무)을 공식 후원한다.

19일 유한김벌리에 따르면 회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1980년부터 국내 최대규모의 티슈 공장을 경북 김천에서 운영하며 오랜 기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다.

유한김벌리의 후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이어지며 이를 기

념해 전남 김천시청에서 김충섭 김천시장(구단주)과 김천상무 배나호 대표, 유한김벌리 김병현 김천공장장, 채용석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도 가졌다.

김천상무는 2021년부터 김천을 연고지로 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연고지 정착 원년인 지난해 K리그2에서 우승하며 K리그1으로 바로 승격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김승호 기자 bad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곡성군, 데이터 행정역량 '전국 최고수준'

총 96.6점... 지자체 평균 83.29점

전남 곡성군이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역량에서 전국 최고수준으로 평가됐다. 19일 곡성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평가'에서 곡성군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현황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정착시키고자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지자체의 경우 266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으며 이 중 90개 기관이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에서 곡성군이 받은 총점은 96.6점에 달하며 지자체 평균 83.29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다.

평가는 4개 분야(데이터 기반 행정 거버넌스, 활용 역량 강화, 공동 활용 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 및 활용) 8개 지표에 따라 진행됐다. /곡성(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6개 사업에 143억 투자

전남, 김치산업 발전 원년

'생산 시설 현대화'에 9.4억 '김치 원료공급단지' 유치

전라남도는 올해를 김치산업 발전 원년으로 삼고 김치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소비 촉진, 수출 증대를 위해 6개 사업에 143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김치생산 시설 현대화'에 9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김치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돕기 위해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에 100억 원을 투입한다.

값싼 수입산 김치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배추김치 양념속 냉

기 장비 등 '김치 생산비 절감장비 구입'에 9억 원, 김치 소비 촉진을 위한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재료 구입비' 12억 원, 맛을 균일화한 김치 생산을 위해 '김치 발효중균 보급사업' 6000만 원을 지원한다.

배추 등 원료 구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김치 원부재료 매입자금' 12억 원을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290억 원 규모 '김치 원료공급단지'도 유치해 김치산업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홈쇼핑 '베스트 파트너' 특별상에 영주시

우수 중소기업 동반성장 약속

홈쇼핑의 '베스트 파트너 어워즈' 특별상에 경북 영주시가 뽑혔다.

홈쇼핑은 우수 중소기업 파트너사를 선정·시상하고 파트너사와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베스트 파트너 어워즈'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베스트 파트너사로 선정된 협력사는 방송과 모바일 상품 중소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취급액, 효율, 신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베스트 파트너사의 경우 TV홈쇼핑 방송부문에선 ▲에이치엘사이언스 ▲파세코 ▲아이티씨 ▲코리아테크 ▲왁스코리아트레이딩 ▲맥프레이즈 ▲형성에프엔비 ▲에이지피에스가 뽑혔다.

모바일 부문에선 ▲뉴트리원 ▲이푸른 ▲에이치글로벌이 각각 수상했

다. 특히 장욱현 영주시장은 '빨간마녀 사과' 판매확대로 지역 우수상품 판로확대를 이끈 공로로 특별상을 받았다.

장욱현 시장은 "지역 농가의 판로확보에 힘써준 홈쇼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영주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홈쇼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중소기업 파트너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메가브랜드 아이템을 육성·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옥찬 홈쇼핑 대표는 "협력사와 상생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파트너사들과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부산 해운대서 '부기'와 찰칵"

부산시는 코로나19 지친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소통캐릭터인 '부기' 조형물을 해운대해수욕장에 설치했다.

조형물은 성인 남성 2명이 양옆에서 서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다. 부산을 상징하는 어묵과 씨앗호떡을 양손에 들고 있는 데다 동백꽃이 그려진 신발을 신고 있다.

조형물 설치를 기념해 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부기 머그컵'을 추첨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

영양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영양군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서 직접 비용을 부담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별도 가입 없이 영양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해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개물림사고 응급실내 원치료비, 자전거상해 사망 등 10개 항목을 추가함과 동시에, 기존 가입한 21개 항목 중 농기계사고상해사망, 의사사고 사망 등 8개 항목의 최대보장금액을 2,000만원으로 확대 가입하였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